



즉시 배포용: 9/22/2015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성폭행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

이름을 합법적으로 변경하는 사람들의 개인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에도 서명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성폭행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가족 구성원을 성폭행하여 유죄 판결된 경우 피해자 보호 명령이 적어도 피고인의 보호관찰 기간이 끝날 때까지 연장되도록 합니다.

“이 조치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핫점을 메우고 피해자가 받아야 하는 보호를 받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본인은 이 상식적 법안에 서명하여 자랑스러우며 이 매우 중요한 이슈를 위한 발의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전에는 범죄자가 출소는 하였지만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는 동안에 종종 보호 명령이 만료되었습니다.

이 법안(A.1797-A / S.4340-B)은 가족 구성원이 관련된 중범죄 성폭행 유죄 선고에 보호관찰이 포함된 경우 10년 보호 명령을 요구합니다. 경범죄 기소의 경우, 6년 보호 명령이 요구됩니다. 두 기간은 이러한 범죄에 의거한 보호관찰 명령의 최대 기간과 일치합니다.

상원의원 Sue Serin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폭행의 피해자들은 보복의 두려움과 그들을 반복 범죄에 취약하게 놓아둘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원천적 불신 때문에 자신에 대한 범죄를 신고하지 않기로 너무 종종 선택합니다. 우리는 법이 그들에게 최고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도록 할 책임이 있는데 본인은 이 문제를 우선순위로 삼은 주지사와 본인의 동료들, 특히 Amy Paulin 하원의원께 감사드립니다.”

하원의원 Amy Pauli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법의 비밀관성을 시정하여 피해자에게 그녀의 공격자로부터 더 큰 보호를 제공할 것입니다.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호 명령이 만료되는 경우 피해자의 안전과 복지가 심각한 위협에 처합니다.”

주지사는 또한 이름을 합법적으로 변경하는 사람들의 개인 안전을 보호할 법안(S.5240 / A.2242)에도 서명하였습니다. 법률에 의거 이름 변경은 지정된 신문에 발표되어야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 안전이 위협 받는 경우에는 면제가 발행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면제 신청을 심사할 폭넓은 권능을 법원에 주고 그들의 재량권이 개인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 위협에 한정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합니다.

상원의원 Diane Savin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름을 합법적으로 변경하기로 선택하는 뉴욕주민이 그 결과로 추가적인 희롱 또는 위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안은 법원이 공표 면제 부여 여부를 결정할 때 이름 변경을 둘러싼 총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본인은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이 자랑스러우며 그것을 오늘 서명하신 Cuomo 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이 법안을 작성한 Harry Bronson 하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가정 폭력 행동과 차별이 설 자리가 없어야 한다는 데에 우리가 동의할 수 있음을 본인은 압니다. 우리는 가정 폭력 피해자들과 그러한 개탄스러운 행동의 위협에 처할 수 있는 성전환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 법안에서 제공하는 보호는 우리 동료 뉴욕주민들 다수의 개인적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합니다. 본인은 이 중요한 민권 보호 법안에 서명하신 Cuomo 지사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주 전역의 많은 옹호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